

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안전결의대회특별교육 실시

조진용 기자

2026년 03월 08일(일) 17:57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최근 사업단 하구둑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30명이 참석해 '안전결의대회(청렴이행각서 교환) 및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'을 실시했다.

이날 안전·청렴 특별교육에서는 안전관리 5대 분야와 관련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처벌법, 공사현장 재해발생 사례 교육으로 사업단 전 직원, 현장관계자들의 재해예방 경각심을 높였고, 2026년도 재해율 0% 달성을 약속했다.

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서했다.

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청렴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고, 각 건설현장에서의 부패예방과 고충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은 "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"을 강조하며 "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에 공사와 현장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"을 당부했다.

조진용 기자

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(www.jndn.com)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.

URL : <http://www.jndn.com/article.php?aid=1772960226428351004>

프린트 시간 : 2026년 03월 09일 09:07:57